

창업지원정책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김미주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중소기업부 팁스(TIPS) 지원사업이 팁스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팁스 창업기업은 팁스(TIPS)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모두 참가하였고, 민간투자 유치까지 받은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팁스 창업기업 13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14일부터 2022년 3월 11일까지 약 8주간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팁스(TIPS) 지원사업을 세분화하여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민간투자 유치 총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기업가정신 요인은 혁신성, 도전정신, 리더십, 위험감수 총 4가지로 구분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 팁스(TIPS) 지원사업이 기업가정신 요소에 미치는 영향력은 도전정신, 혁신성, 위험감수, 리더십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화자금은 혁신성과 위험감수, 보육시설은 도전정신과 위험감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도전정신과 리더십, 민간투자 유치는 혁신성과 도전정신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지원사업이 2013년 도입 후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약 10년 차를 맞이하였으며, 그간 민간투자실적, 고용률 등 가시적인 성과 중심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팁스(TIPS) 지원사업이 팁스 창업기업에게 기업가정신 함양에 기여했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주제어: 창업기업, 팁스(TIPS),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 민간투자, 기업가정신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이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17년 7월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킨 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벤처·창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중소기업부(2022b)에 따르면 벤처투자 실적이 2017년 약 2.4조 원에서 2021년 기준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여 7조 6,80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고,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국내 유니콘 기업 수도 2017년 3개 기업에서 2021년 말 기준 18개사로 6배 급증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22c). 또한 벤처·스타트업 고용증가율이 '20년 6월 말'보다 21년 동 기준 10.2%로 전체기업 3.4%와 비교하여 3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국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1c).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구제전자제품박람회) 혁신상에서 우리나라 수상기업이 2019년 5개 기업에서 2021년 21개 기업으로, 또한 미국 포브스사가 선정하

는 아시아 글로벌 리더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2016년 5개에서 2021년 15개 기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21b).

2020년 창업지원사업은 16개 정부 부처에서 90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예산 규모는 총 1조 4,517억 원이다. 주요사업으로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으며, 민관협력사업으로 팁스(TIPS), 사내벤처육성이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창업사업화 및 R&D 자금, 창업시설·공간, 창업교육·멘토링·컨설팅 및 행사·네트워킹으로 나뉜다. 지원사업별 예산은 창업사업화 및 R&D 자금이 12,441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창업시설·공간 1,259억 원, 창업교육·멘토링·컨설팅 및 행사·네트워킹 816억 원순이다(국회도서관, 2020). 더 나아가 중소기업부(2022a)에 따르면 2022년에는 2016년 통합공고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기관에서 참여했고, 사업유형에서도 융자사업이 최초로 포함되어 14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63개 기초지자체 총 94개 지원기관과 378개 대상사업, 3조 6,668억 원의 지원예산

* 주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mjandu@naver.com
투고일: 2022-04-29 · 수정일: 2022-06-12 · 게재확정일: 2022-06-24

모두 역대 최대규모를 보이며 창업생태계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은 사업화 및 연구개발(R&D) 자금, 보육시설·공간, 교육·멘토링·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3가지로 구분되며, 22년에는 용자가 추가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2년부터 추가된 사업유형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화 및 연구개발(R&D) 자금을 사업화자금으로 통칭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업유형 3가지를 기술창업기업 대상으로 총괄 지원하는 것이 바로 팁스(TIPS) 지원사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창업지원사업 중 민관협력사업으로서 대표적인 모델로 손꼽히는 팁스(TIPS)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김정유, 2017).

한국엔젤클투자협회(2022)에 따르면 팁스(TIPS) 지원사업은 2013년 도입된 이래 2022년 기준으로 10년 차를 맞이하였다. 이를 통해 2021년 12월 기준 약 1,634개 팁스 창업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정부지원금 대비 약 8.2배 이상의 후속 민간투자유치를 달성했다. 또한 기업공개(IPO) 8개, 인수합병(M&A) 40개 등 성공사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원사업 시행 후 중간점검 차원에서 팁스(TIPS) 지원사업을 수혜 받고 있는 팁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간 팁스(TIPS)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투자유치 실적, 고용률 등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해 조사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질적 성과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 경제에서 창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팁스(TIPS) 지원사업이 팁스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실효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은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한다(Timmons & Bygrave, 1986; 김중호, 2009). 반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의 상관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대부분 창업지원정책 중 창업교육과 같이 제한된 유형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민희, 2021; 남정민, 2015; 김연정·노병수,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인 팁스(TIPS)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이것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팁스(TIPS) 지원사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팁스(TIPS) 지원사업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지원과, 교육, 훈련, 사후관리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성 요소에는 창업자의 잠재적 능력과 아이디어 도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창업공간 및 창업자금지원 등이 포함된다(Johnson,

1990; Gartner & Vesper, 1994).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 창업지원사업도 사업화 및 연구개발(R&D) 자금, 보육시설·공간, 교육·멘토링·네트워킹으로 구분되며, 기술창업기업 대상으로 총괄 지원하는 것이 팁스(TIPS) 지원사업이다.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지원사업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자와 정부 R&D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고급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1a). 이와 같이 팁스(TIPS)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팁스(TIPS) 지원사업은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13년 사업화자금을 시작으로 2015년 보육시설·공간인 팁스타운 개소, 2017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투자설명회를 통한 민간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팁스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화자금은 필수적으로 지원받고, 보육시설·공간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신청 희망자에 한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2020년 창업지원사업 유형별 예산과 유사한 비율로 팁스(TIPS) 지원사업도 2022년 기준 사업화자금 예산이 연구개발(R&D) 2,157.2억 원과 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777.7억 원으로 총 약 2934.9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중소벤처기업부, 2022a), 다음으로 보육시설·공간 운영예산이 42억 원이며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산은 42억 원 중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성현희, 2021).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업화자금 예산은 2014년 269억 원에서 약 10.9배 증가했으나 보육시설·공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산은 2016년 약 30억 원에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유형별 사업 예산의 증가 폭이 격차가 있다.

먼저, 팁스(TIPS) 지원사업 중 사업화자금을 살펴보도록 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공 벤처기업가 중심의 엔젤클투자사와 초기 전문 벤처캐피탈(VC), 기술대기업 등을 팁스 운영사로 지정한다. 팁스 운영사가 기술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1~2억 원 내외로 선투자한 후 정부에 추천하면, 그중 최종 팁스 창업기업으로 선발하여 연구개발(R&D) 자금을 24개월간 최대 5억 원,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자금을 각각 10개월간 최대 1억 원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1b). 그리고 2018년 6월부터 프리 팁스(Pre-TIPS), 포스트 팁스(Post-TIPS)를 신설하여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프리 팁스(Pre-TIPS)는 투자자로부터 엔젤클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팁스 창업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화자금 10개월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포스트 팁스(Post-TIPS)는 팁스를 통해 검증된 팁스 졸업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화자금 18개월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도전성공패키지 내에서 운영되던 ‘민간투자연계사업’을 2021년부터 팁스-R로 개편하여 지원한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한 우수 재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향후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춘 틱스-R 창업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업화자금 8개월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 2021a). 또한, 2020년 7월부터는 스타트업틱스(프리틱스, 틱스, 포스트틱스, 틱스-R)와 구분되는 사업으로, 스케일업틱스(투자형R&D)를 신설하여 기술역량을 보유한 하이테크 중소벤처가 고위험·혁신형 R&D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투자 방식으로 R&D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운영사가 10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모태펀드 매칭 투자 최대 20억 원, R&D자금 최대 2년간 6억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22d).

<표 1> 틱스(TIPS) 사업화자금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한도	
틱스 (TIPS)	연구개발 (R&D)	틱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예비) 창업기업	24개월	최대 5억 원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틱스 R&D 선정 창업기업	10개월	각 최대 1억 원
프리틱스 (Pre-TIPS)	창업기획자 등으로부터 1천만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 미만의 창업기업	10개월	최대 1억 원	
포스트틱스 (Post-TIPS)	틱스 R&D '성공' 판정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18개월	최대 5억 원	
틱스-R (TIPS-R)	창업기획자 등으로부터 1천만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7년 미만의 재창업기업	8개월	최대 1억 원	
스케일업틱스 (Scale-up TIPS)	투자형R&D	스케일업 틱스 운영사로부터 선투자 10억 원 이상을 유치한 창업기업	제한없음	최대 20억 원
	투자연계형R&D		2년	최대 6억 원

*연구자가 틱스 통합공고 및 스케일업틱스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함.

다음으로 보육시설·공간인 틱스타운에 대해 알아보자. 틱스타운(TIPS TOWN)은 2015년 7월 S1을 시작으로 S2, S3, S4까지 개소하였으며, 2020년 7월에는 중기부와 포스코가 민관협력으로 서울 체인지업그라운드를 개소하여 총 5개 틱스타운 건물 30개층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 틱스타운에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틱스 운영사, 틱스 창업기업 등 창업생태계 관계자 약 90여 개사 700명 이상이 입주해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투자 활동의 지방 확산을 위해 서울 틱스타운에 이어 2020년 12월 대전 틱스타운이 설립되었다. 대전시 충남대 내에 5개 층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2022).

마지막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교육 및 멘토링, 네트워크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틱스 창업기업은 법률, 세무 등 전문 컨설팅과 마케팅, HR 등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기업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후속 민간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를 통해 창업생태계 주요 인사와 교류할 수 있다(한국엔젤투자협회, 2022).

본 연구에서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민간투자유치’를 정부 창업지원사업 외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여 이것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2.2. 기업가정신

‘기업가’라는 용어는 『상업일반의 본성에 대한 에세이』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경제학자들은 기업가정신에 기초한 기업가의 기능을 조직과 관리, 혁신, 위험부담과 불확실성의 처리의 기능이라고 하였으며 현대에 들어와서는 ‘기업가’란 사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조직하고 운영하며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수영 외, 2014).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며, 기업가정신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기업가정신 정의를 설명하는 대표 학자인 Schumpeter(1934)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의 창의적인 행동으로 기업가가 환경변화에 창의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박남규 외, 2015). Quinn & McGrath(1985)은 재무적, 심적, 사회적 위험을 가정하고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과 개인적인 만족을 가정하면서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바치면서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후 국내에서도 박상용(2003), 윤백중(2011), 이승현(2014), 강재학·하규수(2015)이 기업가정신 개념에 대해 밝혔다. 이에 대해 기홍석(2020)의 연구를 인용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기업가정신 정의

연구자	주요내용
박상용(2003)	기업가정신은 불확실한 시장상황 속에서도 현재를 명확히 진단하여 미래를 예측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의지와 행위이다.
윤백중(2011)	기업가정신은 위험부담이 크지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보상을 기대하며 고객을 위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창업자의 행동특성이다.
이승현(2014)	기업가정신은 끊임없는 변화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회를 포착하고 과감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행동개념이다.
강재학·하규수(2015)	기업가정신은 제한된 자원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진취적인 기업가적 마인드이다.
기홍석(2020)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마인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이란 ‘불확실한 시장경제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정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마인드’라고 정의하겠다. 이러한 기업가정신 개념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 요소를 ‘혁신성’, ‘도전정신’, ‘리더십’, ‘위험감수’ 4가지로 분류하여 설정하였다.

첫째, ‘혁신성’은 Schumpeter(1934)가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기업가정신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여겨지고 있다. 윤석철(2003)은 생산설비 투자와 경제를 활성화하며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제품, 품질 좋은 제품, 성능이 우수한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게 하여 새로운 산업의 생성과 기존 사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상호(2006)는 기업

이 새로운 시장 및 고객을 창출하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품 및 프로세스를 개발 혹은 기존 제품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모든 활동의 결합이라고 정의했다. 서리빈(2010)은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둘째, ‘도전정신’에 대해 안혜진·이승하(2020) 연구에서는 기업가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어려움에 맞서는 태도와 의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고경일 외(2016)는 도전정신이란 확실하고 위협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 혹은 생산 방식을 통해 수익창출의 기회를 구체화하는 합리적인 성향이라고 정의했다.

셋째, ‘리더십’ 정의에 대해 Covin & Slevin(1991)은 높은 리더십을 가진 기업은 적극적인 태도로 경쟁을 주도하고 경쟁적 상황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 리더십 있는 기업가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행동하고 새로운 시장과 틈새시장을 창출하며 경쟁사에 비해 확고한 위치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행동한다. 안혜진·이승하(2020)는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목표의식과 긍정적 자극 및 동기부여를 통해 조직의 통일성을 높이고 목표점에 다다르게 만드는 리더의 역량이라고 말했다.

넷째, ‘위험감수’에 대해 Miller(1983)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업에 대해 의사결정을 실시할 때 위험선택적 의사결정을 도입하여 성과창출 기회를 확대하는 기업가의 성향이라고 말했다. Sexton & Bowman(1987)은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시도하려는 의지의 정도로서 위험에 무관하고 이를 즐기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서리빈(2010)은 성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을 내리고 구체적 행동을 취하여 자원을 투입하려는 경향이라고 정의했다.

기업가정신 요소의 주요 내용과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기업가정신 요소

요소	주요 내용 및 핵심 키워드
혁신성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기회를 파악하고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다. [핵심 키워드] 새로운 아이디어
도전정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 혹은 생산방식을 통해 수익창출의 기회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핵심 키워드] 기회, 위기극복
리더십	전략적인 기업가의 행동중심 개념으로 미래 수요시장의 요구와 경쟁사 행동을 예측하여 경쟁사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이다. [핵심 키워드] 미래지향적 행위
위험감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확실한 성공의 보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신규기회를 포착하려는 능력이다. [핵심 키워드] 성공보장 없는 과감한 시도

2.3.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 연구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사례를 살펴보자면 대체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정부 및 기관이 창업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남규 외(2015)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인 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이 기업가정신 요소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자금지원과 위험감수성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의 창업지원정책은 창업가정신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연구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웹기반 서베이라는 양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창업가에게 실제로 어떠한 경험과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

오재우 외(2015)는 창업보육기관을 통해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가정신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혁신성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재석·이상명(2015)는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 중에서 혁신성과 진취성은 긍정적인 조절 효과를 보인 반면 위험감수성은 부정적인 조절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경·남정민(2021)는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교육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정규 및 비교과 창업프로그램 횟수의 증가에 따라 기업가정신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창업지원정책 중 교육 유형에 중점을 두었으며 대부분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III.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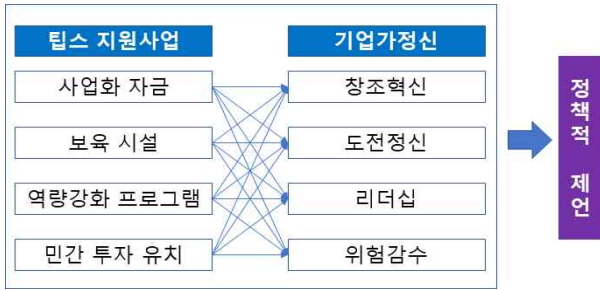
3.1. 연구의 모형 및 연구문제 설정

위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정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정책인 틱스(TIPS) 지원사업을 사업화자금, 보육시설(공간), 역량강화 프로그램, 민간투자 유치 총 4가지로 나누고, 기업가정신 요소를 혁신성, 도전정신, 리더십, 위험감수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틱스(TIPS) 지원사업이 기업가정신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틱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방식의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층 인터뷰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틱스 창업기업이 기업가정신을 균형 있고

올바르게 갖추기 위해 틱스(TIPS) 지원사업을 어떻게 수정·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그림 1> 연구의 모형을 근거로 하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사업화자금이 기업가정신 중 어떠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보육시설이 기업가정신 중 어떠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기업가정신 중 어떠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민간투자 유치가 기업가정신 중 어떠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3.2. 심층 인터뷰 설계

위 2.1과 2.2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틱스(TIPS) 지원사업을 사업화자금, 보육시설(공간),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민간투자 유치 4가지 측면으로 나눴으며, 기업가정신 요소를 혁신성, 도전정신, 리더십, 위험감수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틱스(TIPS) 지원사업이 기업가정신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틱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방식의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본 연구와 같이 틱스(TIPS)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등 양적 조사로는 자료수집이 원활하지 않고, 깊이 있는 답변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심층 인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방법은 사회적 행위자들의 의견을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영역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며(조연하, 2005), 참여자의 경험과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게 하므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다(Wolcott, 1992).

본 연구에서 틱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때 반구조화(Semi-structured) 형식을 차용하였다. 사전에 개발된 큰 틀에서 질문 문항을 설계한 후, 인터뷰 대상자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 답변의 흐름에 따라 세부 질문 내용을 유연하게 설정하였다(이재운 외, 2017).

먼저 기존 연구와 정책보고서를 토대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질문 문항을 작성해 틱스 창업기업 13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4일부터 2022년 3월 11일까지 약 8주간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 내용은 틱스(TIPS) 지원사업을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 민간투자 유치 4가지로, 기업가정신 요소를 혁신성, 도전정신, 리더십, 위험감수 4가지로 각각 분류하여 세부적인 질의 내용을 구성했다. 개별 인터뷰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며, 인터뷰 내용 분석을 위해 당사자들의 승인 여부에 따라 녹음 또는 메모를 했다. 이후 2022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약 3주간 본 연구의 모형에 따라 인터뷰 답변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틱스(TIPS) 지원사업이 틱스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틱스(TIPS) 지원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인터뷰 질문 문항은 아래와 같다. 4개의 연구문제에 각각 4개의 세부문항을 작성하여 총 16개 질문 문항으로 구성된 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1: 사업화자금이 기업가정신 중 어떠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 1-1: 사업화자금이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1-2: 사업화자금이 기업가정신 중 도전정신에 영향을 미치는가?
- 1-3: 사업화자금이 기업가정신 중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가?
- 1-4: 사업화자금이 기업가정신 중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보육시설이 기업가정신 중 어떠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 2-1: 보육시설이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2-2: 보육시설이 기업가정신 중 도전정신에 영향을 미치는가?
- 2-3: 보육시설이 기업가정신 중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가?
- 2-4: 보육시설이 기업가정신 중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기업가정신 중 어떠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 3-1: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3-2: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기업가정신 중 도전정신에 영향을 미치는가?
- 3-3: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기업가정신 중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가?
- 3-4: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기업가정신 중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민간투자 유치가 기업가정신 중 어떠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 4-1: 민간투자 유치가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4-2: 민간투자 유치가 기업가정신 중 도전정신에 영향을 미치는가?
- 4-3: 민간투자 유치가 기업가정신 중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가?
- 4-4: 민간투자 유치가 기업가정신 중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3.3. 연구대상

인터뷰 대상자들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의도적 표집이란 조사 대상자의 특성이나 자질을 근거로 한 비확률적 표집 방법으로 조사대상자의 모집단과 그것의 성분에 관한 연구자의 지식과 연구목적의 특성을 토대로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이다(조연하, 2005).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틱스 창업기업에 선정된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틱스(TIPS) 지원사업인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 민간투자 유치 4가지에 모두 수혜 받은 경험이 있는 틱스 창업기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13인의 주요 특성은 <표 4>와 같다. 틱스 창업기업은 유망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창업기업이므로 주된 창업분야가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분야와 관련된 기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틱스 프로그램이 7년 미만 예비 또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 모두 창업한 지 7년 미만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창업 시기가 3년 차가 가장 많고, 그 외는 연차 비율은 비슷했다.

<표 4> 인터뷰 대상자의 주요 특성

사례 번호	성별	창업분야	창업 시기 (연차)	틱스 선정시기 (연차)	틱스 지원사업			
					자금	보육 시설	프로그램	민간 투자
1	남	AI·빅데이터	2015년 (7년)	2020년 (2년)	○	○	○	○

2	남	바이오·헬스케어	2019년 (3년)	2019년 (3년)	○	○	○	○
3	남	바이오·헬스케어	2015년 (7년)	2018년 (4년)	○	○	○	○
4	남	IT·소프트웨어	2018년 (4년)	2019년 (3년)	○	○	○	○
5	남	IT·소프트웨어	2020년 (2년)	2020년 (2년)	○	○	○	○
6	남	바이오·헬스케어	2017년 (5년)	2018년 (4년)	○	○	○	○
7	남	AI·빅데이터	2018년 (5년)	2019년 (3년)	○	○	○	○
8	남	IT·소프트웨어	2019년 (3년)	2021년 (1년)	○	○	○	○
9	남	AI·빅데이터	2019년 (3년)	2019년 (3년)	○	○	○	○
10	여	IT·소프트웨어	2019년 (3년)	2020년 (2년)	○	○	○	○
11	여	자율주행차	2018년 (4년)	2018년 (4년)	○	○	○	○
12	남	자율주행차	2017년 (5년)	2018년 (4년)	○	○	○	○
13	남	정보통신	2019년 (3년)	2020년 (2년)	○	○	○	○

IV. 실증 분석 결과

틱스 창업기업 13개사를 대상으로 한 1:1 심층 인터뷰를 통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 민간투자유치 총 4개의 틱스(TIPS) 지원사업에 대한 각각의 기업가정신 요소 즉, 혁신성, 도전정신, 리더십, 위험감수에 해당하는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심층 인터뷰 내용은 이재운 외(2017)의 분석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인터뷰 대상자 답변 중 유의미한 문장들을 분류하였다.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문장들 속에서 기업가정신 요소의 조작적 정의에서 도출한 핵심 키워드와 매칭하여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 16개 그룹에 해당하는 세부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아래 <표 5>는 틱스(TIPS) 지원사업별 내재적 요인 및 기업가정신 요소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한 것이다.

<표 5> 내재적 요인 및 핵심 키워드

기업가정신 요소	핵심 키워드	지원사업별 내재적 요인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	민간투자 유치
혁신성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입주기업간 업무협업	새로운, 신규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신규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도전정신	기회, 위기극복	새로운 기회, 제2의 도약	네트워크, 투자유치 등 적절한 기회	위기극복, 해외, 수출	새로운 기회, 제2의 도약
리더십	미래지향적 행위	비즈니스 모델 제안	발전적 공간운영	비전(방향) 제시, 발전형인도책	새로운 비전, 기업확장 경영능력
위험감수	과감한 시도	시도, 포기치 않음	안정감, 안도감	위기극복 노하우, 경영능력	재시작, 끝까지 해내는 능력

위와 같이 지원사업별 총 16개의 내재적 요인과 각각의 기업가정신 요소에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인터뷰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자가 임의로 해석하고 오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본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4.1. 틱스(TIPS) 지원사업 중 ‘사업화자금’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틱스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창업성장기술개발(R&D) 자금 5억 원을 일차적으로 지원해주며, 이어 창업사업화자금 최대 1억 원, 해외마케팅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해준다. 이후에는 포스트 틱스(Post-TIPS) 형태로 추가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한 대로 틱스 창업기업 중 성공조건을 달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18개월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여기서 성공조건이라 함은 ① 50억 원 이상 M&A, ② 기업공개(IPO, 코넥스 포함), ③ 연간 매출액 60억 원 이상, ④ 후속투자 50억 원, ⑤ 연간 수출액 100만 불 이상, ⑥ 20명 이상 고용증가, ⑦ ③~⑥ 요건을 1/2 기준 복수 달성 총 7개 조건 중 1개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3년 틱스 지원사업’ 이후로 프리 틱스(Pre-TIPS), 포스트 틱스(Post-TIPS), 틱스-R(TIPS-R), 스케일업틱스(Scaleup-TIPS) 등 추가적인 틱스 연계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틱스(TIPS)’에만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틱스 창업기업이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성공적으로 투자회수(EXIT)를 할 경우에 정부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과제 수행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성실 수행’으로 판정받게 되면 자금에 대한 상환 부담이 없다.

이러한 틱스(TIPS) 지원사업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화자금에 대해 틱스 창업기업 13개사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사업화자금이라 함은 연구개발(R&D) 자금,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자금 이 3가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한다.

<표 6> 사업화자금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Source	인터뷰 답변 (내재적 요인)	연관된 핵심키워드
사례 1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6년 전에 창업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급증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작하고자 2020년에 틱스에 신청하여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아이디어
사례 3	의료계에 근무하면서 발병 원인에 대한 치료제 추천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술로 만들기 위해 틱스에 신청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
사례 4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비디오 플랫폼에 더 집중하고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새로운 아이디어

	비탕으로 틱스에 신청했고 현재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아 시제품 제작 중에 있습니다(새로운 아이템).	
사례 6	국내 굴지 대학과 협업하여 의학기구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과 협업을 벗어나서 창업기업으로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민간 투자유치가 어려운 시점에서 틱스 지원을 받게 되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템 개발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포기치 않음).	과감한 시도
사례 7	AI 학습데이터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석박사가 뭉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다음 단계로 개발하는데 있어 틱스 사업화자금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실패 걱정 없이 여러 번의 시도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시도).	과감한 시도
사례 11	기술 창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개발자금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자기자본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엔젤투자를 먼저 받게 됩니다.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몇 백만 원 정도는 투자해야 하는데 성공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자본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니 과감하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새로운 아이디어, 과감하게 구현).	새로운 아이디어, 과감한 시도
사례 13	연구에 관심이 많아서 2019년에 창업을 하게 되었고, 국내뿐 아니라 싱가포르 등 해외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최종 틱스에 선정되어 사업화자금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자금으로 종이로부터 시작해서 코딩, O2O 플랫폼 등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새로운 제품).	새로운 아이디어

창업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확보’이다(오픈서베이·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21).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틱스 창업기업 대상 지원사업 유형 중에서도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창업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화자금 지원을 받은 창업자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기업가정신 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사례 1, 3의 경우 창업한 지 7년차를 맞이 하였으며 틱스 선정 시기는 4년 이내이다. 이를 통해 초기 창업 아이템은 아니지만 관련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례 4와 같이 창업 직후 틱스(TIPS)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하여 상용화하게 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사례 1, 3, 4와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이란 키워드를 통해 사업화자금이 기업가정신 요소 중 ‘혁신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사례 6은 창업 전에는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금에 대한 부담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자립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으며 상용화 등 사업화 시도를 위해 틱스(TIPS)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화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사례 7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한 후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마다 실패할 경우

자금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런데 사업화자금을 지원 받아 기술개발을 위해 과감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사례 6, 7과 같이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조달, 시장진입 등 어려움을 겪게 되며 통상 3~7년차 기간에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두고 데스밸리(Death Valley) 즉, 죽음의 계곡이라고 한다(한경닷컴, 2015). 사례 6, 7은 틱스(TIPS)에 선정되어 자금지원을 받음으로써 중도에 포기치 않고 위기를 극복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이는 창업초기 통상 3~7년차 기간에 폐업할 경우가 많은 데스밸리(death valley)를 순조롭게 극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다. 창업 초기에 정부에서 사업화자금을 지원해준다면 창업자 또는 개발자가 부담 없이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가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성공적인 사업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틱스(TIPS) 지원사업 중 사업화자금은 기업가정신 요소 중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사례 11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것이 사업화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뜻 자기자본을 투자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인정해주어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한 실행력을 보일 것이다.

또한 사례 13처럼 소액의 자기자본 또는 엔젤투자를 통해 시제품을 만들 수 있어도 그것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용화할 수 있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필요하며, 이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은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화자금은 기술의 상용화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신규 제품(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위의 사례 11과 13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가정신 요소 중 성공보장 없이 과감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위험감수’와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기술력을 입증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4.2. 틱스(TIPS) 지원사업 중 ‘보육시설’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틱스 창업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서울 강남구 역삼로 일대에 위치한 서울 틱스타운이나 충남대 내에 위치한 대전 틱스타운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테헤란밸리’라고 불리고 있으며, 벤처캐피탈, 창업육성기관,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창업기업 등이 서로 밀접

하게 위치해 있다. 특히, 언론기사(이효선, 2021)에 따르면 창업기업과 창업지원시설의 수가 강남구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틱스타운은 면적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틱스 창업기업의 인적 구성원에 따라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틱스 창업기업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요소 중 어느 요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표 7> 보육시설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Source	인터뷰 답변 (내재적 요인)	연관된 핵심키워드
사례 2	스타트업은 투자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추가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소개받기도 하고, 사업을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이나 고민들을 의논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투자자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저는 투자자가 틱스타운에 함께 입주해 있어서 추가 투자자뿐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도 쌓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네트워크)	기회, 위기극복
사례 5	틱스는 틱스운영사의 추천을 통해 선정됩니다. 우리를 담당하는 틱스운영사가 틱스타운에 입주하고 있어서 선정되기 전부터 틱스타운에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틱스 선정 후에 틱스운영사가 틱스타운에 입주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권유하여 입주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다양한 투자자를 만나면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관계자가 방문할 때 우리 기업에 들어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이 언론기사에 보도되면서 작·간접적으로 홍보 수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기회, 위기극복
사례 8	창업하려면 누구든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자금뿐 아니라 입주공간까지 저렴하게 지원해주니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공간에 대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과 일정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확보됐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짧은 시간 내에 큰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감)	과감한 시도
사례 10	창업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시작할 수 없어요.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어야 하고, 자금을 확보한다고 해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으면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중에 하나가 사무실 임대비용이에요. 그런데 틱스에 선정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틱스타운에 입주할 수 있어서 그 부담감을 떨칠 수 있어요. 그리고 틱스 관리기관이 함께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이나 기술을 연구하는데 더욱 집중할 수 있어요. (안정감)	과감한 시도
사례 11	틱스타운 주변에서 창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운 좋게 틱스창업기업으로 선정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틱스타운 주변에 사무실을 잡았던 이유도 틱스타운 일대에서 투자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틱스타운에는 스타트업 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를 엿보기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네트워크, 적절한 기회)	기회, 위기극복
사례 12	서울 강남구 일대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창업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더욱이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 등에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임대문제가 해결되면 불확실한 부분이 줄어들어 부담없이 사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안정감)	과감한 시도

사례 8은 창업가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사업화자금 지원뿐 아니라 입주공간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더욱 집중할 수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가 창업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사례 10은 틱스(TIPS) 지원사업의 경우, 선정되는 즉시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틱스타운에 입주할 수도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틱스 관리기관이 함께 입주하고 있으므로 틱스 창업기업으로서 ‘틱스(TIPS)’라는 브랜드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실패에 있어 불안감을 떨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사례 8, 10과 같이 틱스(TIPS) 지원사업에 있어 보육시설 제공은 창업가가 홀로 창업했을 때의 불안함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보육시설 내에 관리기관이 함께 있다는 것은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게 해 주어 이를 발판으로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기업가정신 요소 중 ‘위험감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례 12의 경우 서울 틱스타운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위치가 좋은 곳에 입주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주변 사무실보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틱스 창업기업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최소한 사무실이 있으면 창업 아이템 또는 기술 개발이 실패하더라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보육시설은 기업가정신 요소 중 성공보장이 없더라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위험감수’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사례 2는 사례 12와는 다른 측면으로 입주환경에 대한 언급을 했다. 입주환경이 창업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2, 3의 투자사를 만날 수 있고, 다양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른 보육시설이 창업기업만 입주해 있는 것에 비해 틱스타운은 창업기업, 투자자, 창업 관련 단체나 기관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다.

사례 5는 틱스 창업기업의 특성상 틱스 운영사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는 틱스 창업기업이 민간 투자자인 틱스 운영사로부터 1~2억 원의 선투자를 받은 후 정부에 추천되고, 이를 통해 최종 틱스 창업기업으로 선정받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틱스 운영사는 틱스 선정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해나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틱스타운 내에 틱스 운영사와 그 운영사가 추천한 틱스 창업기업이 함께 입주하고 있다면 보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시간적·물질적으로 절약이 될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관계자들과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더욱이 틱스타운은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의 방문이 자주 있으며, 해외 투자자와 기관의 방문도 종종 있는 편이다. 사

례 5의 경우에는 이러한 틱스타운 방문에 맞춰 입주기업의 사업 아이템 소개 등을 통해 직·간접인 방법으로 홍보된 바 있다. 정부 및 국회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틱스타운에 방문하게 되면 언론사들이 함께 방문함으로써 언론기사가 보도되기 때문에 기업의 인지도 상승 등 홍보 효과를 보기도 한다.

사례 11은 틱스타운 인근에 있는 창업지원기관에 입주해 있다가 틱스타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처음에 창업지원기관에서 극초기 단계에서 창업을 시작한 후, 창업기업과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틱스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알게 되었고, 이후 틱스 창업기업으로 선정된 사례이다.

이처럼 틱스타운이라는 보육시설 지원은 사례 2, 5, 11과 같이 창업기업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적절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 요소 중 ‘도전정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4.3. 틱스(TIPS) 지원사업 중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틱스 창업기업은 틱스타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행사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법률, 세무, 인사, 마케팅 등 각 분야별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과 1:1 멘토링 또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창업기업의 강연과 정책토론 등 규모별 네트워크 행사에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도 참가가 가능하다. 대규모 행사에는 창업기업과 국내외 투자자 등 창업생태계 관계자가 참석하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는 교육, 멘토링·컨설팅, 각종 네트워크 행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틱스(TIPS) 창업기업 대상으로 진행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기업가정신 요소 중 어느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표 8>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Source	인터뷰 답변 (내재적 요인)	연관된 핵심키워드
사례 1	얼굴인식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동남아와 일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각종 애로사항이 있는데 전문가 강연이나 선배기업과의 만남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사 업종 스타트업 간의 네트워킹은 행사 이후에도 수시로 연락을 할 수 있어서 실제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발전방안 모색).	미래지향적 행위
사례 2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관심이 많이졌습니다. 최근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협의 중에 있는데, 해외 투자유치를 처음 진행해 보는 터라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법률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계약서에 있는 독소조항을 발견하게 되면서 실제 위기를 극복하고 무사히 계약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위기극복).	기회, 위기극복

사례 4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유사한 업종의 대표님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면 보통 7년 이내에 사업의 성패가 갈리기도 하고,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역량강화나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업무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확장하기도 하고, 투자자나 영업처를 소개받기도 했습니다(위기극복).	기회, 위기극복
사례 6	스타트업에 있어 인재채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에 비해 스타트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낮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틱스 창업기업은 기술창업이기 때문에 개발자나 전문가 출신의 경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관리하거나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이럴 때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이나 스타트업 맞춤형 HR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이 우수 인력을 구성하고 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난 강연자의 내용이 노리에 꽂혀 따로 우리 기업에 초청하여 컨설팅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발전방안 모색).	미래지향적 행위
사례 9	딤러닝 기반 인재인식과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 동향에 대해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 진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해외 투자자와 해외 컨설팅 담당자를 통해 해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해외 시장의 실질적인 반응을 선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행착오를 최대한 경피 않도록 기업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었습니다(방향 제시).	미래지향적 행위
사례 12	몇 년 전만 해도 사드 문제로 인해 중국 수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체할 수 없어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법인설립부터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1 법률 멘토링에 오신 멘토님을 통해 해외진출 전문 법무법인을 소개받게 되었고, 이곳과 함께 중국, 폴란드 등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수출, 해외).	기회, 위기극복
사례 13	코로나19로 인해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계는 시장흐름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상황변화는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마케팅'이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 비대면 사업을 구상해서 직원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지 지시해둔 상태입니다(방향 제시).	미래지향적 행위

사례 1은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있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것에서 나아가, 참가자가 강사와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이다. 특히, 사례 1과 사례 9의 경우에는 해외진출에 있어 각종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다. 창업생태계의 경우 국내에 비해 해외 진출 성공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세한 정보나 노하우가 부족한 편이다. 이럴 경우 창업기업 대표는 역량강화 또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가 또는 경험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창업기업의 경영자가 미래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발전방안을 모색해나간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 요소 중 '리더십'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사례 1, 9의 인터뷰 내용에서 내재적 요인을 '해외, 수출'이 아닌 '발전방안 모색, 방향 제시'로 도출한 것은 창업기업 대표가 해외진출이나 수출에 대해 직접적인 기회나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기업의 대표로서의 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창업기업의 기업가치 평가에서 세부항목은 창업팀 특성, 기술성, 수익성, 경쟁성, 시장성으로 분류된다(홍순식, 2020). 이 중에서 '창업팀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창업기업의 조직구성 및 운영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창업기업의 구인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오픈서베이.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1)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구인난은 65.2%이며, 전년 대비 인력난 심각 인지 수준은 70.1%에 달한다.

이에 사례 6은 HR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업 규모별, 특성별 조직관리 및 체계화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사례 6의 조직 운영에 반영하였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강연한 강사를 기업에 초청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 미래 발전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사례 6은 일자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창업기업과 대학생, 개발자와 연결해주는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전문인력을 매칭해보는 경험을 하였다. 이것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인재상을 설정하는 한편, 이를 통해 각종 노하우 등을 얻을 수 있었다.

사례 13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성된 디지털마케팅 교육과정에 참석한 기업이다. 창업기업의 특성상 대기업, 중소기업과 같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라 기업 대표가 직접 모든 것을 통솔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대표나 임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틱스 창업기업이 최신 트렌드 및 시대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이 미래지향적 행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 요소 중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례 2는 해외 투자유치를 처음 경험하는 사례로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서에 있는 독소조항을 발견하여 실제로 위기를 극복하여 원활하게 해외유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우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사례 12를 보면 해외 진출을 위해 법인 설립을 준비 중에 여러 가지 법률 정보가 필요했다. 이 경우에도 법률 멘토링을 통해 해외진출 전문 법무법인을 소개받아 해외 법인설립이나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원활하고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중 무역전쟁, 중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환경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에 있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 요소 중 '도전정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4는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인맥을 형

성한 경우이다. 실제로 데스밸리(death valley)에 해당되는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시기에 선배 창업가나 투자자와 인맥을 형성해서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기회를 엿보기도 한다.

사례 4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든지 투자자나 영업처를 소개받는 등 다양한 기업 경영의 정보를 공유받아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사례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위기를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기업가정신 요소 중 ‘도전정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4.4. 팁스(TIPS) 지원사업 외 ‘민간투자 유치’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초기 창업기업은 팁스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이후부터는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기업을 성공적으로 엑시트(EXIT: 투자 후 출구전략을 의미하는데 투자사의 입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의미(기획재정부, 2017))를 하려고 노력한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팁스(TIPS) 지원사업 외에 팁스 창업기업이 민간투자 유치를 했을 경우에 기업가정신 요소 중 어느 요소에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표 9> 민간투자 유치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Source	인터뷰 답변 (내재적 요인)	연관된 핵심키워드
사례 3	2018년도에 ‘팁스’에 선정된 이후 금융권, 액셀러레이터에서 후속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21년에는 시리즈A 때 투자유치 했던 벤처캐피탈에서 추가로 투자 해주어 시리즈B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이다 보니 00제약 회사로부터 추가적으로 투자유치를 받게 되었고, 이후 신규 서비스 도입이나 경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신규 서비스).	새로운 아이디어
사례 5	2020년에 팁스로 선정된 이후 해당 운영사로부터 추가적으로 투자유치를 받아 시드에서 시리즈A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벤처캐피탈의 투자유치를 통해 제품 개발에 매진할 수 있었고, 고급 인력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 원활히 성장하자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21년에는 일본 벤처캐피탈로부터 민간투자를 받아 해외진출이라는 새로운 기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새로운 기회).	기회, 위기극복
사례 7	2019년 팁스에 선정됐을 당시에는 시드(seed) 단계였습니다. 이후 벤처캐피탈 3곳으로부터 후속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시리즈A 단계입니다. 이러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최우수 국제학술대회에 채택되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2의 도약).	기회, 위기극복
사례 8	우리 기업은 화상으로 진행하는 웹서비스가 전문 분야입니다. 창업 후에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에서 민간 투자유치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미국 벤처캐피탈에서도 투자유치를 받은 후 팁스에 선정된 케이스입니다. 상대적으로 민간투자자와의 접점이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자문을 구해 신규 서비	새로운 아이디어

	스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와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이들의 조언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신규 서비스).	
사례 9	팁스에 선정된 이후 세계 스타트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고, 우수 대학과 협업하여 사업을 확장해나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홈 기업을 통해서 민간 투자유치에도 성공하였습니다. 투자자와 의논하여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스마트홈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신규 제품, 서비스).	새로운 아이디어
사례 10	2019년에 창업한 후 아이디어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니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간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살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민간 투자자가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도 줘서 팁스에 선정되는 등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새로운 기회).	기회, 위기극복
사례 11	‘팁스’라는 타이틀 덕분에 정부의 ‘소부장 스타트업’ 등 다양한 지원정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아져 기존 10억 원대였던 민간투자 실적이 2020년에 약 70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진출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제2의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제2의 도약).	기회, 위기극복
사례 12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진행하면서 민간투자 약 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간투자금을 바탕으로 업무협약 기관과 신규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신규 아이템).	새로운 아이디어

사례 3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창업기업으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제약회사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으며 유사 업종 분야로서 업무적으로도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가며 기업을 경영하는데 효과를 본 경우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사례 9가 있다. 사례 9도 민간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스마트홈 기업으로부터 후속 투자유치를 받아 스마트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신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사례 3과 9는 해당 창업기업과 유사한 업종의 대·중견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으며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이다. 사례 12 또한 업무협약과 동시에 민간투자를 받게 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업무협약 기관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했다. 이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기업가정신 요소 중 ‘혁신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사례의 대부분은 엔젤투자를 받은 후 팁스(TIPS)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에서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인데 비해 사례 8은 초기에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제품을 개발한 경우이다. 더욱이 미국 벤처캐피탈에서도 투자유치를 받아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사례 8은 민간 투자자를 동반자적 성격으로 보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신규 서비스나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것도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 요소 중 ‘혁신성’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사례 5는 국내 민간 투자유치를 통해 제품 개발과 고급 인력 확보 등 기업을 경영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일본 벤처캐피탈로부터 후속 투자유치를 성공하여 해외 진출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었다.

사례 11도 ‘팁스’ 브랜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여 후속 민간투자를 유치한 결과 기업가치가 상승하였다. 최근에는 해외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사례 5와 11은 민간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이를 발판으로 해외진출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 요소 중 ‘도전정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례 7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서 우수 인재를 채용하여 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국제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투자유치 자금으로 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었다. 사례 10은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들고 상용화하는데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데스밸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민간 투자유치를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서 나아가 정부의 지원사업 선정 등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게 된 경우다.

위의 사례 7, 10과 같이 민간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이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상황을 극복하여 새로운 단계로 도약한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 요소 중 ‘도전정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5.1. 연구결과 및 정책적 제언

팁스 창업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 결과, 기업가정신 요소에 대한 영향력이 도전정신>혁신성=위험감수>리더십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표 10>과 같다.

<표 10> 심층 인터뷰 결과

기업가정신 요소 지원사업	혁신성 (새로운 아이디어)	도전정신 (기회, 위기극복)	리더십 (미래지향적 행위)	위험감수 (과감한 시도)
사업화자금	●	△	△	●
보육시설	△	●	△	●
역량강화 프로그램	△	●	●	△
민간투자 유치	●	●	△	△

[표기 영향력 있음 ‘●’, 영향력 미흡 ‘△’]

지금보다 균형 있는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다음과 같이 팁스(TIPS)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아래 순서는 기업가정신 요소 중 가장 영향력이 미흡한 순서부터 제시하였다.

첫째,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제언이다. 팁스(TIPS) 지원사업 중 기업가정신 요소에 가장 약한 영향력을 미친 부분은 ‘리더십’이다. 팁스 창업기업 대상 인터뷰 결과 ‘리더십’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업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13년 사업화자금’, ‘15년 보육시설·공간’, ‘17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순으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도입 시기와 이에 따른 예산과도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이 우선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화자금과 보육시설 관련 예산은 매년 증액되는 것에 반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팁스타운 예산 내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매년 팁스 창업기업 선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팁스 창업기업의 수요와 그간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 확대 및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팁스타운 운영비에 포함된 예산이 아닌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별도 사업비 항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가정신재단, 전국 대학 및 대학원, 창업·투자 관련 민간 기관의 창업과정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가정신재단, 교육 및 민간 기관과 팁스 창업기업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론과 실체가 결합된 교육과정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팁스(TIPS) 지원사업이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18~2020년 5년간의 팁스(TIPS) 창업기업의 81%가 서울·경기·대전에 편중됐으며, 전남·강원·경남 등 지방소재 기업은 1% 이하로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컸다(박영암, 2020).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지역의 역량강화 전문인력 육성 및 연수 또는 수도권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 수도권과 지역의 전문인력 간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지역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험감수’ 강화를 제언이다. 팁스(TIPS) 지원사업 중 기업가정신 요소인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업화자금’과 ‘보육시설’이었다. 이중 사업화자금은 팁스 창업기업의 100%가 수혜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보육시설은 팁스 창업기업의 일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팁스타운이 서울 역삼로 일대에 집중되어 있어 창업기업 활동 범위가 서울 강남구 외 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2020년 12월 대전 충남대 내에 대전 팁스타운이 설립되어 지역으로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다. 이를 시작으로 팁스타운이 수도권 외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다만, 팁스타운은 건물 임대 또는 매입이라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확장보다는 점진적 확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 보육시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팁스 창업기업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나 입주 희망 시 팁스 창업기업 대상으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기업가정신 요소 중 위험감수 요소를 강

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부, 지자체, 민간 보육시설의 입주율 제고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혁신성’ 강화를 위한 제언이다. 기업가정신 요소 중 ‘혁신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업화자금’과 ‘민간투자 유치’로 나타났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이후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또 다른 아이템 및 서비스 발굴은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유치 등 자금 확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현재 팀스(TIPS) 지원사업 중 사업화자금 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으며, 창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정부지원금 또한 증액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이로만 간다면 기업가정신 요소 중 ‘혁신성’을 강화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에는 정부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2016년 통합공고가 생긴 이래 2022년 처음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기관이 참여했다는 점은 창업지원사업이 보다 체계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와 더불어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창업에 대한 디딤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투자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실제 민간투자에서의 방해요소를 찾아 지속적으로 법률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창업생태계가 조성된다면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 즉 창업가정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도전정신’ 강화를 위한 제언이다. 기업가정신 중 ‘도전정신’은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강화시킬 수 있었다. 팀스(TIPS) 지원사업의 유형별 사업이 고르게 기업가정신 요소 중 ‘도전정신’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팀스 창업기업에서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술창업기업이 도전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팀스(TIPS) 지원사업을 성장단계별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일례로 2013년부터 팀스(TIPS)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자 2018년부터 프리 팀스(Pre-TIPS), 포스트 팀스(Post-TIPS)를 신설하여 예비 팀스 창업기업과 팀스 성공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는 스타트업팀스(팀스, 프리팀스, 포스트 팀스, 팀스-R)과 구분되는 하이테크 중소벤처를 위한 스케일업팀스(Scale-up TIPS)를 신설하였으며, 2021년에는 재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팀스-R(TIPS-R)도 개편하였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팀스(TIPS) 지원사업을 성장단계별로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편, 2022년 기준으로 팀스와 프리팀스(Pre-TIPS), 팀스-R의 사업 전담 주관기관은 한국엔젤투자협회이며, 포스트팀스(Post-TIPS)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다.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팀스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연속성으로 지원되는 만큼 사업 전담 주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관기관의 실무자 간 정보공유 및 수시 소통, 전체 주관기관과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워크숍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 및 생태

계까지 자리 잡게 되면 팀스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 중 ‘도전정신’을 더욱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팀스(TIPS) 지원사업은 2013년 도입되어 2022년 기준으로 10년 차를 맞이 하였다. 그간에는 민간투자 유치 금액, 고용률 등 가시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한 정책 현황 분석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팀스(TIPS) 지원사업이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미치는 질적 효과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팀스 창업기업이 기업가로서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팀스(TIPS) 지원사업이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팀스(TIPS)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중간점검 차원에서 창업기업과 심층 인터뷰 진행을 통해 알아낸 개선사항을 정책적 제언으로 밝힘으로써 추후 팀스(TIPS) 지원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기업가정신 요소에 대해 각각 정책적 제언을 함으로써 추후 팀스 창업기업이 기업가정신 요소를 균형있게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팀스(TIPS)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각 사업이 미친 기업가정신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 중인 창업지원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의 유형을 기술창업기업 대상에게 국한하여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팀스(TIPS) 지원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화자금, 보육시설·공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예산 비율도 동일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해도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1:1 심층 인터뷰라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접근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양적·질적 연구방법을 통합하여 진행한다면 정책적 제언에 대한 부분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대상 측면에서 본 연구는 팀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프리 팀스(Pre-TIPS), 포스트 팀스(Post-TIPS), 팀스-R(TIPS-R), 스케일업 팀스(Scale-up TIPS)에 해당하는 팀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후 성장단계별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것도 폭넓은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업기업의 투자단계에 따라 시드(Seed), 시리즈 A, B, C 이상, 엑시트(EXIT)로 나뉘는데 이 기준을 추가한다면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투자단계별 틱스 창업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과정에서 틱스 창업기업의 부정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틱스(TIPS) 지원사업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불편한 요소 등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주의 깊게 논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질문 문항도 제작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지금보다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REFERENCE

- 강재학·하규수(2015).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4), 1-12.
- 고경일·고혁진·김선우·이윤석(2016). 글로벌기업가정신을 통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16(1), 213-224.
- 국회도서관(2020). *팩트북 스타트업육성정책 통권 제80호*. 서울: 국회도서관.
- 기홍석(2020). 기업가정신 및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실패부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김민희(2021).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창업 및 경영성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 김수영·유왕진·이상진(2014). IT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과 동적역량간의 관계분석을 통한 조직유효성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과학회지*, 19(4), 101-117.
- 김연정·노병수(2012). 창업교육이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0(6), 23-31.
- 김정유(2017.11.15.). *문재인 정부서 주목받는 '틱스'... 혁신창업 '롤모델' 될까*. 이데일리, Retrieved(2022.3.22.) fro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53046616126048&mediaCodeNo=257&OutLnkChk=Y>.
- 김중호(2009). *규제,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제542호)*. 세종: 산업연구원.
- 남정민(2015).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 성과간의 연구: 해커톤 교육을 중심으로 한 변혁적리더십 효과성 분석. *벤처창업연구*, 10(1), 45-53.
- 기획재정부(2017). *엑시트* Retrieved (2022.4.22.)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357168&cid=43665&categoryId=4366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2022). *틱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Retrieved(2022.3.22.) from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474#L4>.
- 박남규·김명숙·고종욱(2015).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6), 89-98.
- 박상용(2003). *벤처기업 CEO의 기업가정신, 구성원의 임파워먼트, 조직유효성의 관계에 대한 구조적 모형*.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박영임(2020.9.22.). *'최대 7억' 틱스(TIPS) 선정기업 수도권 편중*. 강원 경남 1% 미만. 뉴스핌, Retrieved(2022.3.22.) from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922000361>.
- 서리빈(2010).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기업가정신이 기술경영성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성현희(2021.10.5.). *'한국형 실리콘밸리' 틱스타운 운영 예산 삭감*. 전자신문, Retrieved(2022.3.22.) from <https://www.etnews.com/20211005000209>.
- 송상호(2006). 기술혁신 유형과 기술혁신 영향요인에 관한 상황론적 연구. *인사조직연구*, 14(2), 177-213.
- 안혜진·이승하(2020). 청년 창업 멘토링이 기업가정신과 초기 기업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심층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7), 560-575.
- 오재우·고복수·강진규(2015). 멘토링기능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1), 129-141.
- 오픈서베이·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1).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1*. Retrieved(2022.4.23.) from <https://www.startupall.kr/reports>.
- 유현경·남정민(2021). 청년의 창업교육 참여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구성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5(2), 28-52.
- 윤백중(2011).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윤석철(2003).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시장지향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 이승현(2014). *창업가의 특성 및 창업가정신 그리고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기업경영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재석·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이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0(3), 61-74.
- 이재운·오수진·김명연(2017). 누구와 창업할 것인가?: 스타트업 공동창업팀 내 심층적 다양성의 필요영역.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0(1), 49-76.
- 이효선(2021.02.19.). *제2의 '테헤란 벨라'는 나올 수 있을까?*. 프레시안, Retrieved(2022.3.22.) from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191055508021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 조연하(2005). 인터넷상의 청소년 이용 성표현물의 법적 규제체계에 관한 전문가 인식 연구: 음란물법 적용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3(3), 95-126.
- 중소벤처기업부(2021.1.26.a). *올해 틱스(TIPS) 지난해보다 100개 더 뽑아 400개 선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trieved (2022.4.22.) from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736>.
- 중소벤처기업부(2021.4.28.b). *권철승 장관, 틱스(TIPS) 창업기업 운영사와 간담회 가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trieved (2022.4.22.) from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087>.
- 중소벤처기업부(2021.8.19.c). *'벤처스타트업' 상반기 72.7만명 고용, 일자리 6.7만개 늘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trieved(2022.4.22.) from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914>.
- 중소벤처기업부(2022.1.3.a). *2022년 3조 6,666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trieved (2022.4.22.) from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993>.
- 중소벤처기업부(2022.1.27.b). *지난해 벤처투자 78% 증가한 7조 6802억원... 역대 최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trieved

- (2022.4.2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565>.
- 중소벤처기업부(2022.2.15.c). 제2벤처붐 열기 속 국내 유니콘기업 18개 '역대 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trieved (2022.4.22.) from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984>.
- 중소벤처기업부(2022.4.20.d). 권 장관 투자형R&D 운영사 지원사업과의 간담회 참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trieved (2022.4.22.) from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132>.
- 한경닷컴(2015). *테스밸리*. Retrieved (2022.4.22.)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98482&cid=42107&categoryId=42107>.
- 한국엔젤투자협회(2022). *서울 틱스타운 리포트 2021*. 서울: 한국엔젤투자협회.
- 홍순식(2020). *초기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분석을 위한 정성적 평가 항목의 중요도 산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An, H. J., & Lee, S. H.(2020). The Effects of Youth Startup Mentoring on Entrepreneurship and Early Startup Business Performances: Centered on In: depth and Focus Group Interview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7), 560-575.
- Cho, Y. H.(2005). A study on the Korean regulatory system of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The legitimacy of applying obscenity law to CP. *Mediasociety*, 13(3), 95-126.
- Covin, J. G., & Slevin, D. P.(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7-26.
- Gartner, W. B., & Vesper, K. H.(1994). Experiment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Success and Fail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3), 179-187.
- Hankyungdotcom(2015). *Death valley*. Retrieved (2022.4.22.)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98482&cid=42107&categoryId=42107>.
- Hong, S. S.(2020). *Startup Enterprise Value Analysis A Research on the Importance of Qualitative Evaluation Items*.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Johnson, B. R.(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Achievement Motivation the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39-54.
- Kang, J. H., & Ha, K. S.(2015). A Study of Effect of Self-Leadership by College Student on Recognition of Opportunity on Establishment of Company and Will of Establishing Company: Centered on Mediated Effect of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4), 1-12.
- Korea Business Angels Association(2022). *Seoul TIPSTOWN Report 2021*. Seoul: Korea Business Angels Association.
- Ki, H. S.(2020). *A study on the Factors of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 Kim, J. H.(2009). *Regulation,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vol.542)*. Sejong: KIET.
- Kim, J. Y.(2017.11.15.). *The government's attention to TIPS...Will it be a role model for innovative start-ups?.* Edaily, Retrieved(2022.3.22.) fro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53046616126048&mediaCodeNo=257&OutLnkChk=Y>.
- Kim, M. H.(2021). *A study on the Effects of Start-up Education Program on the Entrepreneurship and the Start-up and Management Performance*. Master's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Kim, S. Y., Yoo, W. J., & Lee, S. J.(2014). An Improvement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Dynamic Capabilities in IT Venture Business.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19(4), 101-117.
- Kim, Y. J., & Noh, B. S.(2012). A Stud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ffect on the Self-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6), 23-31.
- Kyung, I. K., Ko, H. J., Kim, S. W., & Lee, Y. S.(2016).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ompetence of Export Company and Global Entrepreneurship.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16(1), 213-224.
- Lee, H. S.(2021.02.19.) *Will "The Second Tehran Valley" be able to come out?.* Pressian, Retrieved(2022.3.22.) from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191055508021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 Lee, J. S., & Lee, S. M.(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61-74.
- Lee, J. Y., Oh, S. J., & Kim, M. U.(2017). Whom should you start a company with?: Exploring the component of deep-level diversity in start-up co-founding teams.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30(1), 49-76.
- Lee, S. H.(2014). *A study on effect of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on business performance*.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2017). *EXIT*. Retrieved(2022.4.22.)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357168&cid=43665&categoryId=43665>.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1.1.26.a). *The government will select 400 tips companies, 100 more than last year*. Republic of Korea Policy Briefing, Retrieved(2022.4.22.) from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736>.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1.4.28.b). *The Minister will hold a meeting with TIPS startups and operators*. Republic of Korea Policy Briefing, Retrieved(2022.4.22.) from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087>.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1.8.19.c). *Venture and start-ups have increased 7.27 million employees and*

- 6.7 million workplaces. Republic of Korea Policy Briefing, Retrieved(2022.4.22.) from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914>.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2.1.3.a).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integration of 3.6668 trillion won in start-up support projects in 2022*. Republic of Korea Policy Briefing, Retrieved(2022.4.22.) from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993>.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2.1.27.b). *Last year's venture investment amounted to 7.6802 trillion won...That's the biggest number ever*. Republic of Korea Policy Briefing, Retrieved(2022.4.2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565>.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2.2.15.c). *18 Korean Unicorn Companies 'Highest Ever'*. Republic of Korea Policy Briefing, Retrieved(2022.4.22.) from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984>.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2.4.20.d). *The Minister attended a meeting with investment R&D operators and companies*. Republic of Korea Policy Briefing, Retrieved (2022.4.22.) from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132>.
- Nam, J. M.(2015). A Study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Outcomes: Focusing on Hackathon Education by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ffectiveness analysi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1), 45-53.
- National Assembly Library(2020). *FACT BOOK-Startup Development Policy(no 80)*. Seoul: National Assembly Library.
- Oh, J. W., Ko, B. S., & Kang, J. K.(2015).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Mentoring Functions on Entrepreneurship: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the Business Start-up Preparation Period.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1), 129-141.
- Opensurvey & Startup Alliance.(2021). *Startups Trend Reprot 2021*. Retrieved(2022.4.23.) from <https://www.startupall.kr/reports>.
- Park, N. G., Kim, M. S., & Ko, J. W.(2015).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Entrepreneurial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6), 89-98.
- Park, S. Y.(2003). *A Structural Modeling of Relationships between CEO's Entrepreneurship in Venture Business, the Empowerment of the Member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Park, Y. A.(2020.9.22.). *'Up to 700 million' TIPS companies are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Less than 1% in Gangwon and Gyeongnam*. Newspim, Retrieved(2022.3.22.) from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922000361>.
- Quinn, R. E., & McGreth, M. R.(1985). *The transformation of Organizational Culture*. Beverly Hills: Martinseds, Organizational Culture.
- Republic of Korea Policy Briefing Policy Wiki(2022). *TIPS(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Retrieved(2022.3.22.) from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474#L4>.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eo, R. B.(2010). *The Effects of Innovative Capabilities and 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of SMEs on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 Management*.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 Sexton, D. L., & Bowman, N.(1987). Evaluation of an innovative approach to teaching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5(1), 35-43.
- Song, S. H.(2006). Organizational Contingency Factor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Korean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 Contingency Approach.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14(2), 177-213.
- Sung, H. H.(2021.10.5.). *Korean-style Silicon Valley Tipstown cuts budget*. Etnews, Retrieved(2022.3.22.) from <https://www.etnews.com/20211005000209>.
- Timmons, J. A., & Bygrave, W. D.(1986). Venture capital's role in financing innovation for economic growt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 161-176.
- Wolcott, H. F.(1992). *Posturing in qualitative inquiry*. In M. D. LeCompte, W. L. Millroy & J. Preissile(Eds),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NY: Academic Press.
- Yoo, H. K., & Nam, J. M.(2021). Effects of Young People's Participation in Start-up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Verification of Intermediate Effects of Self-efficacy Components. *The Journal of Korean Career-Entrepreneurship & Business Association*, 5(2), 28-52.
- Yoon, B. J.(2011).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spirit and motivation-driven entrepreneurship on establishment of new business by undergraduate student*.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Yoon, S. C.(2003). *A Study on Effect of the Ven.,tures Market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on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Doctoral Dissertation, Donggeui University.

The Effect of Startup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ship: Focusing on TIPS Support Projects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ijoo Kim*

Abstract

This study studied the effect of the TIPS support project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on the entrepreneurship of TIPS start-ups. The TIPS start-up company, which is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selected for the TIPS support project, participated in all commercialization funds, incubation facilities, and capacity building programs, and was selected as a company that received private investment.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about eight weeks from January 14, 2022 to March 11, 2022.

For this study, the TIPS support project was subdivided into four categories: commercialization funds, incubation facilities, capacity building programs, and private investment attraction, and entrepreneurship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innovation, challenge spirit, leadership, and risk-taking. As a result of the in-depth interview, the influence of the TIPS support project on entrepreneurship factors was in the order of challenge spirit, innovation, risk-taking, and leadership.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commercialization funds influenced innovation and risk-taking, incubation facilities had a challenge spirit and risk-taking, competency-building programs had a challenge spirit and leadership, and attracting private investment had an influence on innovation and challenge spiri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 TIPS support project, a private investment-led technology start-up support program, was introduced in 2013 and as of the end of March 2022, and a report was prepared focusing on visible performance such as private investment performance and employment rate. However, through this study, by analyzing whether the TIPS support project contributed to the cultivation of entrepreneurship for TIPS start-ups, it was found that it had a positive influence not only on quantitative growth but also on qualitative growth.

KeyWords: start-ups, TIPS, commercialization funds, incubation facilities, capacity building programs, private investment, entrepreneurship

* First Author, PhD Candidate, Department of Governance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ungkyunkwan University, mjandu@naver.com